

조계종 중헌 개정안 통과될 수 있을까

원로회의 오는 10일 46차 회의

조계종 원로회의는 오는 7월 10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제46차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198회 중앙총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중헌 개정안 3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중헌 제130조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의되는 안전이어서 이번 원로회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중앙총회는 지난 6월 25일 제 198회 임시회를 열고 중헌개정안 4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비구니 스님의 호계·법계위원 진출을 허용했으며, 총무원장과 호계위원장 법규위원장이 법계 종사, 승납 35년, 연령 55세 이상 비구로 상향됐다. 중앙총회의원의 자격을 법계 종려·정덕, 승납 15년, 연령 35세로 변경했다. 또한 위원회 안에서 호선하고 있는 초심호계위원과 법규위원장은 중앙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성민 기자

진각종 교육원

제2기 수행연수

7월 1~2일 산하 시설장 대상

진각종 교육원(교육원장 경당)은 7월 1, 2일 양일간 진각문화전승원서 진각복지재단 산하 시설장을 대상으로 '진기 68년 제2기 수행연수'를 열었다.

종단 산하 복지관 20여 시설장들이 참가한 이번 연수는 안산심인당 주교 보성정사의 지도로 '자애명상', 교육원장 경당 정사의 '수행법 강의 및 실습', 도안심인당 주교 도향 정사의 '자기발견의 시간', 명선심인당 교화스승 심정도 전수의 '다도 및 다례의 시간', 경전심인당 주교 법정 정사의 '회사법 강의'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살면서 종교를 잘 활용하면 삶에 보람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교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공부해야 할 것"이라며 "진각종 산하시설 시설장만큼 이번 연수를 통해 진각종을 제대로 배워 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주일 기자



진각종 교육원은 7월 1~2일 산하 시설장들을 대상으로 제2기 수행 연수를 개최했다.

불교기록유산 디지털로 만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아카이브 시스템 공개

대장경·한국불교전서 등 '한눈에'

아직 초기단계... 2026년까지 진행

대장경을 비롯한 한국불교의 모든 전적들을 디지털화한 아카이브 서비스가 인터넷으로 공개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현각)은 7월 2일 동국대충무로영상센터 227호 강의실에서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웹서비스 시스템 설명회'를 갖고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kabc.dongguk.edu)을 공개했다.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ABC) 사업은 2012년부터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을 받아 진행 동국대의 지원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2026년까지 총 600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구축은 초기사업에 속한다.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의 통합 검색은 아카이브 자료를 한글과 한자의 구분없이 검색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자료의 성격도 자동 분류해 보다 사용자들이 보다 쉽게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세검색과 연계검색을 통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위논문, 국내학술지논문, 단행본 등 전문자료를 비롯해 네이버의 관련 뉴스까지 연동해 제공한다. 이와 함께 각 자료는 원문 이미지도 제공된다.

이번에 공개된 ABC 웹서비스 시스템은 크게 통합대장경, 한국불교전서, 신집성문헌 등의 세 가지 콘텐츠로 구성됐다.

먼저 통합대장경은 월정사 인경본을 저본으로 하여 <도행반야경> 등 54종의 경전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7월 2일 공개한 '불교기록유산 아카이브' 메인 화면.

이 통합돼 구축됐다. 고려대장경 원문이미지 54종, 580권, 14,964장, 한자 텍스트 4,726,465자와 한글대장경 번역문 14,669,931자가 문단과 경전과 권 별 형태로 제공된다.

통합대장경 서비스는 고려대장경 인경본 이미지와 원본텍스트, 한글대장경을 한 화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고려대장경연구소와의 협력사업으로 진행됐으며 불교학술원은 향후 연구소 측과 고려대장경 인경본 이미지를 중심으로 원문텍스트와 번역문을 추가 서비스할 계획이다.

한국불교전서는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한국인에 의해서 편찬된 불교관련 저술을 집대성한 것으로 이번 인터넷 서비스에서는 <일승법계도원통기-乘法界圖圓通記> 등 128종, 292권, 1만779단, 336만730자의 한자 원문텍스트와 이미지 5134건이 구축됐다. 한국불교전서 서비스는 먼저 한국불교전서의 원문 텍스트의 검색과 열람이 제공되며 원전 이미지 및 번역문은 순차적으로 제공될 계획이다.

신집성문헌은 ABC사업단 내 집성팀이

국내의 사찰, 기관, 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불교기록문화유산을 새롭게 모은 것으로 인터넷 서비스에서는 고서 6만4034장을 비롯해 총 8만4132장, 텍스트는 한자 원문 852만7928자 한글 번역문 1466만9931자 등 총 2275만7126자, 목록 및 해제는 해제 54건, 목록 1470건 총 1524건이 제공된다.

원문 이미지는 동화사 등 10개소의 목록 1470건, 고서 이미지 6만4034장, 원문 텍스트 <회현기>, 40권, 2168쪽, 44만733자 등이 제공된다.

신집성문헌의 인터넷 서비스는 집성작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획득한 원전 이미지들을 고해상도로 먼저 제공되며, 순차적으로 이와 관련한 텍스트와 번역문이 공개된다.

이날 동국대 불교학술원장 현각 스님은 "이번 인터넷 서비스 제공은 한국불교가 갈무리해 온 기록문화유산이 모두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불사의 현장"이라며 "ABC사업을 통해 한국불교 면면의 지혜가 우리 사회에 퍼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후쿠시마 피폭 심각... "원전 사양 사업"

조계종 환경위, 3일 탈핵 한일 공동 세미나

"일본 내 갑상선암 발병률이 100만명당 1명인데 반해 원전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현 주민 37만명 중 소아 갑상선암 환자는 50명이나 된다. 일본 정부는 일반인에게 허용된 방사능 피폭 한계치를 1mSv에서 20mSv까지 높였고 아이들은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산물을 출하할 수 없는 상황이며 주민들의 자살률 역시 높다."

탈핵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일 불교 국제세미나에서 오코우치 히데히토 스님은 원전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현 주민들의 위험한 상황을 전했다. 오코우치 스님은 20년 넘게 활동해온 탈핵운동가이며 자신의 사찰을 중심으로 청정에너지 전환 활동을 추진해왔다.

탈핵 세미나는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가 일본 불교계와 공조해 7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세미나에 참여한 일본참여불교네트워크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에서 탈핵 활동에 주력해온 단체다.

앞서 김익중 교수(동국대 교수,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지난 25년간 원전 개수는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 한국, 중국 등이 원전을 지속적으로 건설해왔지만 유럽 등 선진국이 원전을 줄여왔기 때문"이라며 "원전은 사양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 없이 사는 것은 가능하다"며 "전기수요관리를 통해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해 세계 3위의 일인당 전기 수요국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주장했다. 건물 열 효율을 높여 난방비를 줄이는 등의 에너지 효율화사업 투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세계가 탈원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재생가능에너지 개발보다 전기 수요관리가 더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사실 역시 지적했다.

최원형 불교생태연구소장도 "원자력발전에서 오는 에너지는 인류 전체를 공멸에 빠뜨릴 수 있는 만큼, 불자들은 자신들이 쓴 에너지가 어떤 과정을 거쳐 생명의 존재를 파괴하는지 제대로 알고 생명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현진 기자

"스님 어학 교육, 우리가 돕겠습니다"

조계종 교육원·동국대 3일 업무 협약... 자문위원 위촉도

조계종 스님들의 어학실력 향상을 위해 조계종 교육원과 종합대학 동국대가 손을 잡았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웅)과 동국대 서울캠퍼스 국제어학원, 경주캠퍼스 파라미터칼리지는 7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장 정도 스님은 "오랜시간 준비 끝에 동국대와 업무협약을 맺게 돼 기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종단 스님들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업무협약을 계기로 교육원과 동국대 국

제어학원, 파라미터칼리지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학 내 개설된 영어를 포함한 여러 어학강좌를 수강하는 스님과 신도들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비구니 스님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전문교육기관 국제불교학교 자문위원 위촉식이 함께 진행됐다. 자문위원은 국제불교학교 학사운영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도움을 주게 된다. 이날 자문위원으로 조계종 교육위원장 종호스님(동국대 교수)을 비롯해 국제어학원 장환영 교수, 파나한 교수, 원충희 국제처 국제교류팀장과 파라미터칼리지 류란, 조웬텔 교수와 이진영 학사운영실장 등 7명이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교육원과 동국대는 7월 3일 종단 스님들의 어학 교육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사진 왼쪽부터 황경태 동대 국제어학원장과 교육부장 정도스님, 박상신 파라미터칼리지학장.

올 8.15에 남북불교도합동법회 열리나

민추본, 北에 가능성 타진... 만해축전 방한은 어려워

8·15 남북불교도합동법회가 개성에서 봉행될지도 모른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는 지난 6월 29일 역사상 최초로 만해 스님 열반 70주기 남북합동다례제를 금강산 신계사에서 봉행한데 이어 광복절 남북합동법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산대사 추계제향을 위한 9월 방북은 추후 남북관계 정세를 고려하여 협의할 예정이며 8월 11일 열리는 만해축전에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강수린) 방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불련에서 축하전문은 보내주기로 했다.

민추본은 7월 3일 서울 인사동에서 방북

결과보고 기자회견을 갖고 빠른 시일내에 조선불교연맹과 남북합동법회 실무접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소는 개성 영동사, 관음사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만해 스님 열반 다례제에서 8·15 합동법회를 제안한 민추본은 "북쪽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조불련측 반응을 확인했다며 합동법회 성사 가능성을 밝게 내다봤다.

정부의 협조도 원만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추본은 "이번 다례제 역시 정부와의 소통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며 8월 교황 방한으로 정부가 평화적 남북

관계 분기위 형성을 위한 제스처를 취하지 않겠느냐는 뜻을 비쳤다.

민추본이 창립되면서 진행되기 시작한 남북불교도공동 동시법회는 매년 남과 북에서 합동으로 진행돼 왔다. 지난 2003년에는 조불련 대표단이 봉은사를 방문했고 2009년에는 조계종에서 금강산 신계사를 방문해 공동법회를 진행했다.

한편 민추본은 만해 스님 다례제 봉행을 원만히 마친 것에 대해 "남북이 새로운 사업을 함께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 자체가 큰 성과"라고 자평했다. 이어 "민족역사에 기여한 스님들에 대한 발굴조사 및 재평가 작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배현진 기자

현대불교신문 지령 1000 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종정혜초

승정원 원장	남 파	총무원 원장	도 산
부 원 장	법 장	부 원 장	호 명
원로회의 의장	덕 화	총 무 부 장	재 흥
수석부의장	법 달	교 무 부 장	상 진
차석부의장	지 족	문 사 부 장	성 인
중앙총회 의장	혜 공	규 정 부 장	지 담
수석부의장	지 흥	홍 보 부 장	해 철
차석부의장	자 운	전 법 사 부 장	도 정
		사 서 실 장	현 광
		호 법 원 부 원 장	상 목

종도일동

■ 한국불교전승문화전승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1 (사간동 112) 전화 02)739-3450~4 팩스 02)739-3470